

# 인도 온라인시장 개척 코로나 극복

### 도-경진원, 인도 홈쇼핑·온라인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전북도내 우수 중소 제조기업이면 참여 가능 24일까지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세계경제 악화에 따른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인도 홈쇼핑 및 온라인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정부는 신남방정책 핵심지역인 인도 시장은 인터넷 보급률 증가와 스마트폰 사용자 확대로 최근 3년간 가장 빠른 온라인 유통망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유망 수출 국가로 조명되고 있다.

이번사업은 인도 현지 홈쇼핑 방송 지원, 인플루언서 마케팅, 인도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인도 온라인 시장진입 대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이 인도시장에 안정적인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업체 자격은 도내 소재 우수 중소기업이면 참여 가능하고, 지원규모는 홈쇼핑 5개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4개사 모집 예정이다. 참여업

채 선정은 온라인 화상평의회로 진행되며 모집일정은 오는 24일까지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업체들에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지역제품이 효과적으로 인도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ta.kr) 또는 전화문의(온라인 063-711-2031)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10일 전북은행 본점 3층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착한소비 특별성금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친환경 농산물 착한소비 특별성금 전달

### 전,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0일 전북은행 본점 3층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착한소비 특별성금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김성철 부행장, 김경진 사회공헌부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영숙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들을 돕고, 향토은행으로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앞장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전달식을 마련했다. 전북은행은 특별성금 1,000만원으로 계란, 애호박, 양파, 오이 등 8종류의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된 농산물꾸러미 500박스를 구입했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출력이 어려운 독거어르신 등에 전달하며 착한소비에 앞장설 계획이다. 전북은행 김성철 부행장은 "전북은행의 착한소비가 지역의 농가와 소외계층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힘을 내는데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전했다. /김윤상 기자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 온라인으로

##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 온라인으로

### 농관원, 농정원 농업교육포털서 교육과정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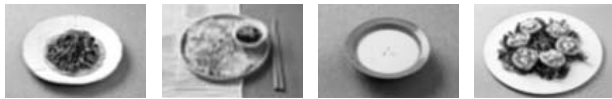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지난 10일부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어느 곳에서나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2년 주기로 인증기준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업인 등은 이번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과정과 전국 시·군 단위 집합 교육과정(현재는 코로나19로 잠정 중지됨) 중에서 편리한 과정을 선택해 인증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농업 온라인 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접속해 연중 어느 때나 받을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PC)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수 있고, 인증 신청 분야에 따라 3개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어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농업교육포털'에는 친환경 농업 과정 외에도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

의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어 함께 이용 가능하며, 장애 발생 시 콜센터(1811-8656) 상담 및 원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설된 온라인 교육과정은 교육 참여자가 8차로 구성된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영상과 그래픽을 활용했다. 짧은 초보 농업인이 친환경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기준과 인증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노력해 가는 과정을 개인 방송 채널로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하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을 직접 만나서 경험담을 들어 보고 실제 농업현장을 소개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제작했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의 원칙과 기준을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기준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김윤상 기자

## '세계 별미 조리? 감자만 있으면 돼'

### 농진청, 감자전샐러드 등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이색 요리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밥 수요가 늘어 메뉴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감자를 이용한 다양한 조리법을 지난 10일 소개했다. 최근에는 신선농산물 소비가 줄면서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일환으로 강원도 감자를 다양 구매할 소비자들 사이에 다양한 감자 활용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 소개한 조리법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외국의 감자 요리와 비슷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한국식 감자 요리를 만들 수 있다. 감자전과 비슷한 스위스 '뤼스티(rosti)'는 '바삭하고 노릇노릇하다'는 뜻으로 감자를 갈거나 얇게 썰어 앞뒤로 노릇하게 구운 것으로 스위스 대표 음식이다. 베이컨, 양파, 햄, 달걀, 버섯 등 여러 재료를 섞어 만들기도 한다. 감자를 얇게 썰기 위해 실천하고자 수상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지도사업 종합평가 중 영농지도부분 평가는 전국의 농·축협을 대상으로 선노동업인의 영농지원, 영농기술교육, 농업경영지도, 농촌인력지원, 농작업대행, 영농도움미 지원, 지자체협력사업 추진 등을 계량 평가해 농업인의 실익증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우수 농·축협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박성일 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장계농협 과점용 조합장과 임직원이 합심해 농업인의 영농지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지도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 복지와 소득 증진에 앞장서지"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감자전샐러드(사진 왼쪽부터), 감자채전, 감자죽, 통감자구이

(stampen)과 '작은 냄비'를 뜻하는 '꽃(pot)'이 합쳐진 단어로 재료를 삶아 으갠 요리'라는 뜻이다. 삶은 감자에 당근, 양파 등 여러 채소를 섞은 걸쭉한 푸레 형태의 네덜란드 대표 감자 요리이다. 우리나라 강원도의 감자범벅과 유사하다. 감자옹심이와 비슷한 이탈리아 '노끼(gnocchi)'는 찐 감자에 밀가루를 더해 반죽을 만든 후 수제비처럼 모양을 만들어 익혀 소스와 함께 먹는 이탈리아 전통 요리이다. 감자를 반죽해 이용한다는 점에서 감자옹심이와 비슷한 요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감자전샐러드', '감자채전', '감자죽', '통감자구이'를 소개했다. 2018년 기준 다소비식품 17위를 한 감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먹는 식품으로, 비타민, 식이섬유, 칼륨이 풍부하다. /김윤상 기자

특히 감자의 비타민C는 전분으로 둘러싸여 열을 가해도 손실이 적기 때문에 조리 후에도 충분한 영양소 섭취가 가능하며, 칼륨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감자는 검은 봉지, 신문지, 상자 등에 담아 7~10°C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이때 사과를 넣어두면 썩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감자 썩에 있는 독성 물질인 솔라닌은 제거한 후 먹어야 한다. 껍질을 깎 감자는 찬물에 담았다가 물기를 제거한 후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 보관한다. 감자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와 유래, 구입 요령, 보관 방법과 손질법, 섭취 방법, 영양성분 등 자세한 정보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농식품올바로'(http://koreanfood.rda.go.kr)의 '이달의 식재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중기중앙회, '2020년 온라인전시회 사업' 참여기업 17일까지 모집

중기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2020년 온라인 전시회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온라인전시회 사업은 IT 기술과 콘텐츠 접목으로 해외바이어에 대한 상

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도입·운영 중이다. 지원내용은 G기업 또는 제품 특성을 감안한 홍보동영상 콘텐츠 제작 △ 온라인전시관 등록 △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등이며, 지원대상은 '중

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지식서비스업 기업 등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외 전시포털(www.sme-exp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중기중앙회 무역촉진부(☎02-2124-3291)로 문의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